

특별기획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 황등 배수개선사업 예정지구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지난달 30일 익산시 황등 배수개선사업 예정 지구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황등 배수개선 사업은 익산시 황등리, 울촌리, 간촌리, 임상동, 신농동 일원에 진행 예정인 사업으로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영농환경개선, 지역 중대와 습담의 건담 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상무 사장은 "익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지구 선정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가올 수확철을 맞아 저수를 저하에 따른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가뭄대책 마련에 민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민의 장수상 9명 후보자 접수

제 54주년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군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군산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은 결과 3개 부문 9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체육장 3명, 공익봉사에환장 4명, 경제산업군로장 2명이며, 효율장 부문은 후보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3개 부문 12명의 후보자가 추천된 것과 비교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후보자 접수가 마감됐다.

서경찬 군산시 총무과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산시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 데 공헌한 시민이 군산시민의 장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소상공인기업 등 규제관련 불편사항 수렴 현장행정 나서

군산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기업·경영에 등 규제관련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27개 읍면동의 협조를 통해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500여개 업체에 규제관련 협조 서한문과 불편규제신고서를 전달하고 현장 애로접 등을 파악하는 등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섰다.

이번 방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정보부족 및 신청상의 불편 때문에 망설였던 각종 규제제도의 발굴·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창호 기획예산과장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해소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과제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해수청, 명절대비 안전점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중빈)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까지 주요 항만시설과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기간에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과, 새민금 방파제 축조공사 등 대규모 공사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추석명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해요소를 사전 조치하기 위한 점검으로 방화 시설, 구조물 추락방지 시설, 비상연락체계 유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공사대금 및 현장 근로자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사회복지의 날 기념·군산시 희망 복지 박람회' 홍보

플래쉬몹 연출 '눈길'

군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광장에서 희망복지 박람회 홍보를 위한 플래쉬몹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오는 9월 28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은파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민생활과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다.

군산시는 이번에 제작한 플래쉬몹 영상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2016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를 널리 홍보

보할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바쁜 업무 중에도 점심시간마다 틈을 내 플래쉬몹을 연습하며 즐겁고 행복했다"며, "시민들 또한 희망복지 박람회를 통해 희망을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플래쉬몹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복지 박람회를 널리 알려 다양한 복지제도 홍보 및 체험과 복지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는 2009년 5월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8회째로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다채로운 체험·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복지콜센터, 관남맨션, 가스 이상우와 함께 하는 복지토론회, 사회복지현장 사진전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인생, 자기가 꿈꾸는 대로 되어야"

문동신 시장, 군산상고 학생 대상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 특강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달 31일 군산상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희망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문 시장은 '나의 삶, 그 속의 숨은 이야기'라는 주제와 함께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짜는 것이 인간이다'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스라엘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철학들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잘 한 일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여 현대중공업 등 많은 기업유치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더불어 군산시 예산 1조원 확보 등 군산시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여긴다"고 답변했다.

특강을 들은 학생은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자 강의 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달 31일 군산상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희망특강을 실시했다.

에 나가서도 성실과 책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들었다"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취업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며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군산시장 희망·비전특강은 오는 9월 8일 군산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임사회, 기획행정위원회·보건복지위 현장방문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훈)는 제197회 임사회가 개최중인 지난달 31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용균)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연)가 주요사업장 방문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일원에 조성중인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지를 둘러보았다.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힐링공간을 위한 맞춤형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주민힐링공원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휴양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이 추진단계에 맞게 착공이 진행되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은 "지역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성중인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이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과 힐링을 우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등에 앞서 적정운영 여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점검하고자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방문하여 "익산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책임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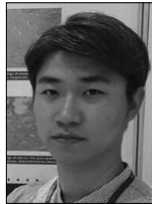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사업장 현장방문이 필수적이며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자 자주 사업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민건강원스톱서비스, 만성질환예방 건강강좌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아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리시가 노인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등 100세 건강도시를 향한 최선의 도시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대학원 식품산업융복합학과 석사과정 오기욱 실험동물학회 연구 장학생 선정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중) 대학원 식품산업융복합학과 기능성식품학 석사과정 오기욱(사진)씨가 2016년도 한국실험동물학회 연구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한국실험동물학회는 매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해 우수 논문을 게재한 대학원생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오기욱 씨는 생명환경학부 김육진(동물매개체조형 전공)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항헬리코박터 소재 개발'을 주제로 8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해 연구료를 인정받았다. 특히 오기욱 씨는 국내·외 학술 대회에서 총 17차례나 학술발표회를 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지도교수인 김육진 교수는 "오기욱 씨는 그동안 진행한 연구와 실험성과를 국제학술지인 Laboratory Animal Research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 학술지에 보고하는 등 학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라며,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 공직공로부분

이우실 서부보훈청장, '대상' 수상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캠페이션홀에서 열린 "2016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보훈공직공로부분 국가보훈발전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한국 사회를 빛낸 대한민국충효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 등이 주관한 행사로 정치·사회·문화·예술·과학·스포츠·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직부분 등에서 평소 봉사·선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그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이우실 전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평소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바분을 다 했을 뿐인데, 이러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 하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 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농기센터, 농업인대학 하반기 워크숍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미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제9기 익산농업인대학의 하반기 워크숍을 지난달 29~30일(2일간) 고창군 웰퍼시타에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70%의 교육이 진행된 시점에서 학과별 교육성과를 검토 분석하고 교육생간의 정보교환으로 농업인대학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연말까지 남은 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생 100명(도마포메탄 35, 딸기반 40, 젊은농업CEO반 25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날로 높아지는 농업생산원가 절감과 친환경 재배를 위해 조성상(자연)을 많은 사람들 대표(이)가 강사가 '초차비용 자가능자 제조 및

활용법'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한 교양강좌로 농업인 건강관리, 팀워크 강화 훈련, 단체 화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대학지회 발전을 주제로 브레인트RAIN을 이틀간 진행해 교육생들의 열정과 의지를 다지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전선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상당한 교육이 진행된 시점인 만큼 다시 한번 본 교육의 목적과 과정을 점검하고 내년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농업인대학은 입학에서 수료까지 매주 4시간씩 연간 100시간이 넘는 교육이 이뤄지는 장기교육이다. 농업정보는 물론 농업인 상호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익산=장양원기자

도시재생선도사업 홍보 기자단 군산 방문

국토교통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중간성과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기자단이 지난달 30일 군산을 방문했다.

군산시를 방문한 기자단은 국토교통부 청년기자단 10명,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관계자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국내 최대 일본식 사찰로 불리는 동국사를 시작으로 히로쓰카유키와 옛 군산세관 등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을 견학하며 가슴 아픈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기자단은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여러 갈등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기자단 방문이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홍보전도사로서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